

西獨, 브록크돌프

原電工事再開에 論爭

西獨에서는 함부르크市 近郊의 브록크돌프原電 (136만5천 KW, PWR)의 建設이 再開되어 이를 둘러싼 論爭이 再燃되고 있다. 歸趣如何에 따라서는 西獨의 原電計劃, 나아가서는 에너지공급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록크돌프原電은 北西독일電力(NWK)과 함부르크電力(HEW)이 협력하여 70年代 初부터 계획하여 왔다. 이 兩社는 이미 2基를 공동으로 완성하였고, 1基는 建設中이며, 브록크돌프는 네번째이나, 76年에 제1차 건설허가(敷地工事)가 나온 직후 슈레스비히 행정재판소로부터 工事中止 명령을 받았다. 중지의 이유는, 電力需要의 감소와 연방 정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불충분이었다. 이 판결에 따라 연방정부는 부득이 建設에 對한 許認可手續을 保留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高레벨폐기물문제의 早速한 해결이 강요되었다.

그로부터 4年, 建設再開에 대한 전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정부측의 폐기물 관리계획이 상당히 進陟되었기 때문이다. 1月에 나온 上級행정재판소의 판결은 글레벤 (處分場豫定地)에서의 地質조사開始 및 既使用 燃料 일시 저장소의 허가신청이 끝났음을 들어 브록크돌프의 建設이 可能하다는 판단을 提示

하였다. 이것을 받은 電力會社는 곧 工事を 再開하였으며, 슈레스비히·홀슈타인州 首相도 内務省의 제2차 건설허가(原子炉등의 主要施設工事)에 同意를 하는 등, 정세는 급진전하기 시작하였다. 브록크돌프의 工事が 軌道에 오르면 他州의 原電建設에도 돌파구가 뚫리게 된다. 그러나 이 건설공사가 아무런 지장없이 進陟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적다. 原電문제를 둘러싼 西獨의 “政治地圖”는 極히 複雜하다. 예를들면 現地의 함부르크市는 社會民主黨(SPD)이 지배하고 있으나, 이 市는 石炭火力의 지지파로서 브록크돌프原電 반대의 최선봉이다. 市의 上院도 3년간의 建設延期를 결의하고, 建設이 강행되면 HEW를 브록크돌프계획에서 撤退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함부르크市는 HEW의 支配株主(持株 70%)이므로 그 지위를 利用해서 重役會에 壓力を 넣으려는 태세이다.

한편, 건설추진파는 州政府와 연방정부인데, 前者는 基督教民主同盟(CDU), 後者는 SPD와 自由民主黨(FDP)이다. 함부르크市의 SPD는 한쪽으로는 州의 CDU, 한편으로는 연방의 SPD=FDP와 이중으로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現地의 5萬名 反對示威(2月27日)에서는 CDU 함부르크支部

員이나 공산당을 포함해서 全政黨의 下部黨員이 참가하는 복잡성을 띠었다. 즉 西獨政界는 與野黨을 不問하고 上部機構(本部, 州政府, 연방정부)의 原子力「推進」과 黨內左派, 地方당원의 「反對」로 분열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환경보호세력의 강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연방정부는 HEW가 撤退를 할 경우 政府系列의 프로이센電力에 HEW持分을 맡게하여 建設을 계속하겠다고 聲明을 내어 함부르크市를 견제하고 있다.

HEW의 撤退는 撤退에 따르는 財政부담도 있으므로 실현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으나 撤退를 둘러싸고 SPD內部에 균열을 깊게 할 우려도 크다.

앞으로의 推移에 따르는 한 두 가지 점을 들

어보면,

1. 建設의 지연으로 建設費는 12억에서 25억 마르크로 信增했으나 従來火力의 코스트增도 심하므로 電力會社는 「原子力이 有利」하다는 판단을 바꾸고 있지는 않다.

2. 함부르크市上院은 原子力否定은 아니다. 연기 이유로 폐기물관리와 高溫가스爐의 實用化 可能性이 보다 확실해진다고 보고 있다. 이後者는 TMI사고의 영향을 명백히하고 있으나 환경派의 강한 절대否定論과는 다른 것이다.

3. 폐기물관리가 상당히 진보하였으므로 行政과 司法上에서도 政府쪽에 유리해지고 있다. 政府가 「강경」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판단이 있다.

日本大學의 核教育

日本에서의 核教育은 세계제 2차대전 後核研究가 再開되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1957年에 Kyoto, Osaka 대학교와 Tokyo기술연구소의 大學院 課程에 核工学科가 開設되었다.

그후 20수년동안 核教育은 日本 原子力產業 成長趨勢에 따라 擴大되었다.

1955年부터 1965年사이에 Kyoto, Tokyo, Tohoku, Osaka대학교에 核工学科가 連續的으로 開設되었다. 이期間동안 研究와 教育

에 必要한 設備들이 갖추어졌다.

核教育을 어떻게 実施할 것인가, 美國과 다른나라에서 実施되고 있는 教育政策을 어떻게反映할 것인가에 관한 討論会들이 開催되었다.

核科學과 여러분야의 基礎工學專攻教育者들이 이 대학들의 核教育 準備에 서로 協力하였다.

核教育은 日本에서 科學과 工學의 첫 相互教育分野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